

## 방학 시즌 여름철 소비 부진으로 난가 약세 전망

# 이달의 계란 전망

경영정책국



### |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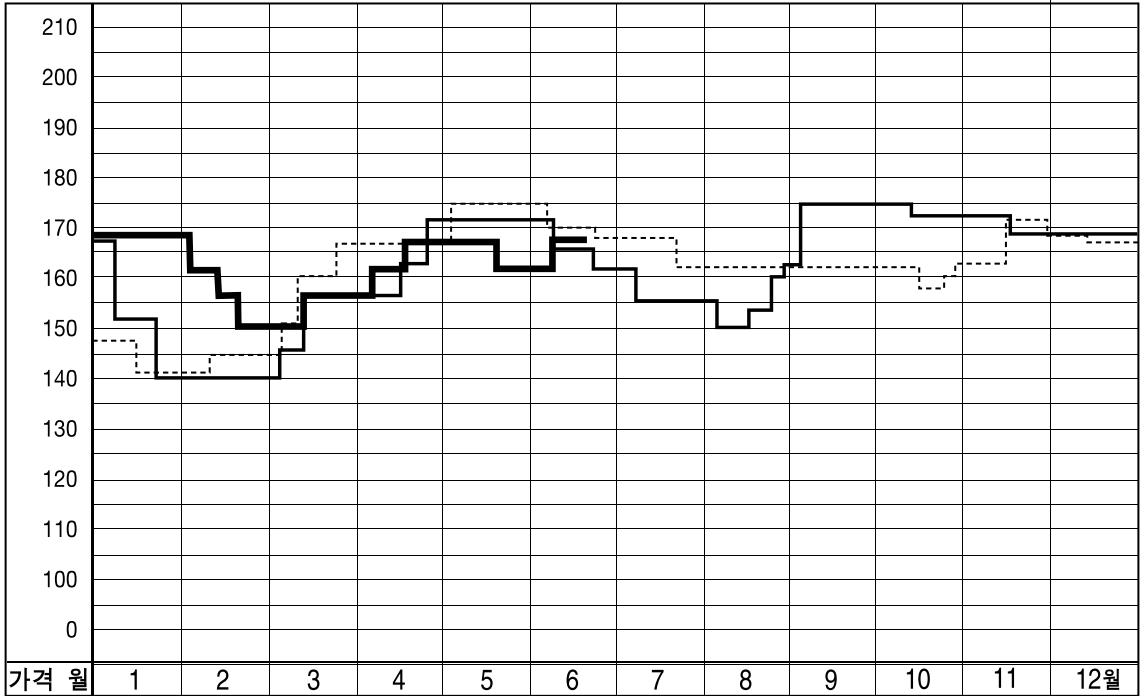
5월초에는 대형매장들의 할인행사와 저병원성 AI 등 소모성 질병 발생이 이어져 난가가 6월 12일 특란 이하 전 품목 5원이 상승하였다. 최근 산란계 업계는 '25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대해 정부와 협회·농장의 찬반토론이 한창 진행중이다. 정부는 법령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단속을 1년 6개월에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생산자들은 사육수수가 줄어들면 수급조절의 어려움으로 계란을 수입에 의존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육면적 확대의 시점에 따라 국내 채란업 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 | 자료분석

지난 5월에 입식된 산란종계는 60,320수로 전년(33,000수) 대비 82% 증가하였다. 1월부터 5월까지 입식된 물량도 전년대비 11.6% 증가한 183,520수로 나타나 3월부터 집중적으로 들어간 물량이 9월부터 병아리 생산에 가담해 내년 초부터 계란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산란실용계 입식수수는 4,834천수로 전년 동월 4,682천수 대비 3.2% 증가했으며, 5월까지 입식수수는 전년대비 16.5% 증가한 23,640천수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차후 계란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월에 생산된 산란사료는 245,886천톤으로 전년 동월 223,577천톤 대비 9.9% 증가했다. 같은 달 육육사료 생산실적은 34,438천톤으로 전년 동월 30,043천톤 대비 14.6% 증가했다. 한편 5월 산란성계육 도축실적은 4,215천수로 전년 동월 2,680천수 대비 5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전망

산지 유통흐름은 질병 및 날씨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은 계란이 부족한 상황이나, 꾸준히 병아리 입식량이 증가하면서 계란 생산성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계란 소비 부진으로 인한 계란 재고량 증가로 노계 도태량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노계 도태량도 전년도 '23년 5월 기준으로 2,255천수 보다 1,559천수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비수기인 여름철로 접어들면 도태물량이 많아 적기에 도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도계장과 사전 출하 일정 협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산란성계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트남이 최근 검역규정을 강화하면서 수출에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란성계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계란수급에도 차질을 가져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계란 소비는 휴가와 방학 등을 앞두고 있어 차츰 감소하면서 난가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22-- 2023 — 2024 —

■ 산란계관련 통계자료

월	연도	총계 입식수 (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21	153,199	4,261	30.1	217.7	1,213	1,700				
	2022	27,000	4,300	30.0	266.7	1,650	1,455				
	2023	29,121	3,879	28.1	239.2	1,450	1,515				
	2024	0	4,427	30.9	260.2	1,450	1,680				
2	2021	36,000	3,649	27.4	190.9	1,379	1,850				
	2022	46,600	3,976	29.0	240.0	1,550	1,429				
	2023	23,000	3,760	26.6	216.7	1,450	1,400				
	2024	0	4,301	28.9	233.6	1,450	1,570				
3	2021	154,936	3,577	33.3	204.2	1,638	1,813				
	2022	70,000	4,644	32.7	275.5	1,550	1,592				
	2023	46,000	3,937	30.1	243.0	1,450	1,516				
	2024	91,900	4,788	30.5	239.3	1,450	1,577				
4	2021	53,000	3,556	34.9	197.7	1,750	1,850				
	2022	0	4,872	32.0	268.0	1,550	1,660				
	2023	33,280	4,021	27.5	223.6	1,450	1,586				
	2024	31,300	5,290	32.6	244.8	1,450	1,623				
5	2021	33,000	3,796	36.3	201.2	1,761	1,900				
	2022	0	4,288	33.9	276.1	1,550	1,741				
	2023	33,000	4,682	30.0	249.1	1,450	1,720				
	2024	60,320	4,834	34.4	245.9	1,450	1,686				
6	2021	90,240	3,327	36.0	208.8	1,950	1,900				
	2022	68,000	4,581	31.9	257.8	1,550	1,704				
	2023	79,600	4,860	29.3	229.4	1,450	1,670				
	2024										
7	2021					36,000	4,213	36.0	212.2	1,950	1,851
	2022					50,000	4,755	30.4	245.5	1,550	1,665
	2023					32,000	4,625	29.2	216.1	1,450	1,569
	2024										
8	2021					9,500	4,064	32.8	210.6	1,850	1,823
	2022					9,500	5,455	31.8	266.1	1,550	1,630
	2023					62,000	5,699	31.3	219.4	1,450	1,547
	2024										
9	2021					26,000	4,186	34.4	217.5	1,838	1,706
	2022					37,000	4,688	33.0	224.0	1,550	1,630
	2023					10,000	4,471	31.9	220.6	1,450	1,730
	2024										
10	2021					0	4,698	36.3	218.7	1,750	1,522
	2022					87,680	3,813	34.2	227.7	1,550	1,629
	2023					96,840	3,914	37.3	245.6	1,450	1,720
	2024										
11	2021					94,360	4,567	36.3	235.0	1,750	1,504
	2022					90,330	3,340	33.9	237.5	1,550	1,691
	2023					32,000	4,026	34.2	242.2	1,450	1,710
	2024										
12	2021					26,000	4,814	40.4	253.0	1,706	1,491
	2022					108,600	3,873	36.1	246.4	1,550	1,711
	2023					26,000	4,158	31.4	244.5	1,450	1,710
	2024										
계	2021					763,435	48,708	414.0	2,567.5	1,694	1,732
	2022					631,110	52,530	442.4	2,729.0	1,558	1,651
	2023					502,841	52,032	367.1	2,789.6	1,450	1,616
	2024										